

고흥군, ‘군민소득 3천만원 시대’ 총력

종합계획 최종보고회...5대 전략 12개 추진과제 논의

농수축산업·관광마케팅 강화 등 군민행복 실현 앞장

고흥군이 ‘군민소득 3천만원 시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흥군은 21일 “송귀군 고흥군수 주재로 지난 20일 군청 흉양홀에서 ‘군민소득 3천만원 시대 종합계획’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3월에 이어 네번

째로 군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군민소득 3천만원 시대는 2016년 기준, 군민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2천20만원을 2022년까지 3천만원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야심찬 프로젝트다.

고흥군은 1인당 GRDP가 우리나라 1인당 GRDP의 63%, 전남도 1인당 GRDP의 53% 수준밖에 되지 않아 열악한 군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했다.

또한 기존의 군민소득 향상 대책들은 농림수산업에 편중되거나 품목 중심의 단편적인 방향으로 추진됐으나 이번 ‘군민소득 3천만원 시대’는 1차 산업 위주인 고흥의 산업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2·3차 산업까지 소득을 높여 모든 군민이 고르게 잘사는 고흥을 만들기 위해

준비됐다.

이번 보고회는 송귀군 군수와 김기홍 부군수 그리고 실단과소장이 참석해 ‘군민소득 3천만원 시대’ 종합계획의 5대 전략, 12개 추진과제와 66개 시책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종합계획의 마지막 담금질을 진행했다.

먼저 농수축산업 강화에서는 소득 높은 농림업, 경쟁력 있는 해양수산, 농수축산업 마케팅 강화 등 3개 과제가 마련됐고 농업농촌발전 협의체 구성 운영, 고소득 과수 품종갱신 및 육성, 양념채소

소득창출 기반 구축, 고흥한우 품질 고급화 추진, 친환경 임산물 고소득 창출, 가공·유통으로 식품산업 육성, 유망품종 양식기반 확충, 해조류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농수특산물 공격적 마케팅, 수출 활성화 및 해외시장 다변화 등 소득개선 시책 30개가 보고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와 소상공인 활성화, 건설분야 지원 강화가 과제로 제시됐고 중소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창업기업 지원 사업 홍보 강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등이 시책으로 논의됐다.

관광산업 강화를 위해 관광 마케팅 총력·관광객 맞이 역량 강화 등의 과제에 대해서는 고흥 관광마케팅 강화, 고

흥 유자·석류 축제 개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확대, 지역 관광사업체 육성, 각종 체육대회·전지훈련 유치로 소득 창출 등 9개 시책이 마련됐다.

군민들의 근로소득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 창출에서는 민선7기 일자리 창출 시책, 귀향귀촌 유치마을 소득 향상, 고흥 시니어클럽 일자리 창출 등 10개 시책이 최종 검토됐다.

송귀군 군수는 “민선 7기 군정 목표인 ‘미래비전 1:3:0플랜’의 핵심축인 군민소득 3천만원시대 실현은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을 앞당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며 “이번 보고회에서 언급된 보완사항을 종합계획에 반영한 후 조속히 실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흥=신용원기자



순천시, 강원도 산불 이재민에 ‘사랑의 밥차’ 봉사 순천시는 지난 16·18일 3일간 강원도 고성군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사랑의 밥차’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강원도 고성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급식환경이 열악하다는 소식을 듣고 순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 벗고 나서 참여했다. 한편, ‘사랑의 밥차’는 취사시설과 냉장·급수설비를 갖춘 3.5의 특수 개조차량으로 1회 최대 300인분의 조리가 가능하고 매주 화요일 순천의료원 공원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급식 봉사를 펼치고 있다. /순천시제공

郡, 주민 중심 ‘담양식 주민자치’ 박차

마을리더 발굴·지방공무원 육성 등 주민자치대학 개강

담양군이 주민 중심의 ‘담양식 주민자치’를 만들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담양군은 21일 “최근 주민자치위원과 주민, 공직자 43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대학 전문가 과정을 개강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대학은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마을리더 발굴, 자치행정을 펼치는 지방공무원 육성 등을 목표로 하는 교육 과정이다.

이날 강의는 전남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문병교 센터장을 강사로 초빙해 “왜 마을은 자치를 하려 하는가?”라

는 주제로 주민자치와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이해, 주민으로 역할 및 자세 등을 내용으로 강연이 이뤄졌다.

이날 문 센터장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이며 주민이 살고 싶은 마을을 직접 만들 수 있어야 진정한 주민자치다”며 “앞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 자치가 담양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주민과 공무원들은 “주민과 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를 만

들겠다”고 다짐했다.

교육은 9월 말까지 ▲마을의 리더로 산다는 것 ▲마을 속의 삶을 연찬하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주민자치의 법과 제도 ▲갈등의 이해와 민주적 토론기법 ▲우리가 만드는 주민자치대학 등의 다양한 주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주민자치대학이 주민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어려운 시기에 활로를 모색하는 자치일꾼을 양성하는 등 전 군민과 주민자치 공감대를 형성해 담양식 주민자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여수기업사랑·지역사랑 음악회’ 연다

24일 오후 7시 이순신광장
신촌블루스·하성관 등 초청

‘2019 상반기 여수기업사랑·지역사랑 음악회’가 오는 24일 오후 7시 이순신광장에서 개최한다.

여수기업사랑·지역사랑 음악회는 기업하기 좋은 여수 만들기, 기업인이 존중받는 문화정착을 위해 여수시와 여수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고 여수기업사랑협의회가 주관해 기업인과 시민이 함께 만드

는 음악행사로 상·하반기에 개최된다.

24일 개최하는 2019 상반기 여수기업사랑·지역사랑음악회는 신촌블루스, 하성관 (대표곡 : 빙빙빙), 마로 (퓨전국악)를 비롯해 지역 내 활발히 활동 중인 유명밴드, 댄스동아리 등이 참여한다.

여수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존 음악회와 차별화된, 대중들이 공감하는 음악회를 만들고 가족단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장소와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기업사랑 음악회를 통해 지역민은 기업을 사랑하고 기업은 시민과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품 추첨도 진행할 예정이며 43인치 LED TV, 자전거, 에어프라이어, 주방용품세트 등 다양한 경품이 준비돼 있다.

한편 여수기업사랑협의회는 여수기업사랑·지역사랑 음악회를 포함해 여수범시민배드민턴대회, 기업사랑 학생백일장, 찾아가는 경제교실, 기업사랑 학교방문 강연회, 여수국가산업단지투어 등 시민이 기업과 함께 공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여수=신선진기자

광양시,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육성 속도

‘드론지원단’ 국가자격증 취득...교통·화재 등 활용

광양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인재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광양시는 21일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단” 10명 전원이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조종자’ 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단’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4차 산업 핵심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을 공공서비스에 활용하고 청년일자리

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광양시는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단’ 참여자 10명을 모집하고 2월 말부터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과정을 지원해 왔다. 교육 과정을 마친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단’ 10명 전원은 합격률이 50~60%에 불과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조종자’ 국가 자격 시험에서 한 번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렸다. 무게 12kg 이상 150kg 미만의 드론 운용과 영리적 목적을 위한 드론 활용

을 위해서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드론 조종자 자격을 취득한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단’은 ▲교통, 화재 사회 재난 발생 시 현장정보 수집 ▲산불감시 및 실종자 수색 ▲4대 계곡 예찰 ▲사회 기반시설 안전점검 ▲농업 방제 등 드론 활용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분야별 실무 교육을 통해 취·창업분야 탐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성 신산업팀장은 “이번 사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미래 산업 인력 양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양=허선식기자

구례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용방면 농창업지원센터 12월 개소

구례군이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한다.

구례군은 21일 “관내 모든 지역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농기계를 임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

소(이하 분소)를 신축하고 오는 12월 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례군은 2009년 처음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개소해 연간 800여농가가 이용하고 있으나 북부지역 농업인들이 농업기계를 임대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

해 용방면 소재 체류형 농·창업지원센터에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8억원을 들여 사무실 및 창고 1동 330㎡를 신축하고 임대 농기계 26종 52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산동면과 광의면 주민들은 농업기계를 임대하려면 왕복 30km의 거리를 2번 이상 이동해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했으나 분소가 설치되면 시간, 인력과 유류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구례=이성구기자

상가 매매 [급매]

■ 북구 문흥동 (6층) 아파트 1만세대 위치 (병원, 대형학원, 한의원, 스포츠, 기타적합)

■ 6차선 도로접 코너변 위치

■ 보증금 1억에 월 450만 임대가능

▶ 감정/시세 → 15억
매 가 → 8억

(신규 사업자 환영)

062-382-5500

010-6670-9800

상가매매 [상무지구]

■ 서구 상무지구 6층 (23평)
상가 겸 주택

■ 전체 올 수리, 내부 깨끗

■ 보 500만 월 50만 (노후대비)

▶ 감정/시세 1억3천
매 가 8천만 (용2천)

062-382-5500

010-6670-9800

경매교육 [기초특수]

☆무료 교육 2회 실시☆ (월,수,토)

① 기초 실전반 (기초 +실전)

② 투자 특수반
(유치권,지분,법지,개발,절반가격)

③ 직업 전문반
(사무실근무,전문컨설팅)

※ 사무실 함께 쓰실분
(책상,컴퓨터 → 제공 / 주1회 물건분석스터디)

경매 물건 추천

1. 북구 중흥동 (상가주택) 토30평,건 145평
▶ 감정이 2억9천3백 → 최저가 2억5백
2. 북구 중흥동 (상가건물) 토52평,건43평
▶ 감정이 2억9천6백 → 최저가 2억7백
3. 북구 일곡동 (4층중 1층상가)토15,건41평
▶ 감정이 3억7천6백 → 최저가 2억6천3백
4. 남구 구동 (다가구원룸) 토81평,건127평
▶ 감정이 4억4백 → 최저가 4억4백

062-382-5500

010-6670-9800